

□ 개요

- 기관명 : 삼호본동경로당, 삼동분회경로당, 삼남분회경로당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 소 : 삼호본동경로당(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44번길 24), 삼동분회경로당(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촌길 2), 삼남분회경로당(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남1길 4)
 - 인원현황 : 각 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 30여명
- 일 시 : 2019. 12. 11 ~ 2019. 12. 12(1회차 : '19.12.11, 23회차 : '19.12.12)
 - 내 용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보급한 울산 소재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및 경로당 주변 환경미화, 지원 물품 기증
 - 참석자 : 14명(신재생에너지산업실 : 8명,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6명)
 - 작성자 :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조현택 대리

□ 내용

-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부서 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두어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민원인들의 피해를 덜어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과거 울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수혜 받은 시설 중 도움에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긴 하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단 주변에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로당 5개소를 확인하였고, 이미 철거가 진행된 2개소를 제외한 3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삼호본동경로당 방문 및 점검 사진 >

첫 번째로 삼호본동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태양광 설비 현장 점검표에 따라 설치확인 기준과 동일하게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로당 관계자에게 점검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로당 주변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고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비를 기증하였습니다.



<삼동분회경로당 방문 및 점검 사진 >

두 번째로, 삼동분회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 인버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시설을 일부러 꺼두었나 싶었는데,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워 하였습니다. 발전 설비로써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점검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전시설 자체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점검은 불가능 하였지만 시공업체에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 문제 상황을 설명하여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남분회경로당 방문 및 점검 사진 >

마지막으로, 삼남분회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삼동분회경로당과 다르게,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발전효율도 좋았습니다. 현장점검표에 맞게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주변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삼남분회경로당에 물품 구입 지원비를 기증하였을 때,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발전시설을 직접 점검하니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확인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공단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점검 절차를 몰라 고장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인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역 내 소외계층 모두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할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합니다.